

“동부권 하늘교통 여수공항 되살리자”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협 오늘 창립총회

회장 선임·운영규약 채택...활성화 논의

여수·순천·광양 광양만권 3개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등 18개 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협의회’가 오늘(11일) 오전 여수 소호동 디오션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협의회’는 지난 4월15일 열린 동부권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여수시의 제안으로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촉발됐다.

이어 지난 7월4일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정례회의(3차)를 갖고 가칭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 협의체’를 발족, 18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2차례 가졌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초대회장 선

임을 비롯해 협의회의 운영규약(안) 채택 및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 개통과 전라선 KTX운행 등 도로여건 발달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여수공항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2014년 12월부터 KTX전라선 여수~용산 행운행시간이 현재 3시간22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단축되고 열차증편에 따라 항공수요 급감과 운항편수 감축이 예

상된다”며 “동부권 하늘교통의 관문인 여수공항을 되살리기 위한 각 기관들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협의회는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동부 3개시와 시의회, 여수·순천·광양상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항공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지방항공청여수공항공출장소, 한국공항공사여수지사, 대한항공 여수여객서비스점 등 18개 기관·기업으로 구성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제동

광양시의회 “위치 선정 잘못” 결정 유보

전남 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앞두고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9일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가 면허시험장으로 정한 곳은 공동주택 부지로, 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여지가 있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적합치 않다고 결정 유보했다.

또 육곡·신금·초남 등 비어있는 공간도 많은데 굳이 신규 부지를 선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 장모 의원은 “면허시험장은 소중공해가 심각한 시설이어서 시가 정한 위치는 적합지가 아니다”면서 “현 위치는 정차 순천과 가까운 광양시에 경제적 시너지 창출효과는 미약하기 때문에 향후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 후 결정하게 바랍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건의해 광양, 순천, 여수, 보성군 등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부지로 광양읍 덕례리 일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광양시는 기획재정부, 도로교통공단에 시설예산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난 6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 후 현 위치로 정하기 위한 행정적 추진을 진행해 왔다.

광양시 관계자는 “올해 기획재정부가 2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동부권 6개 시군과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에 설치하도록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광양읍 덕례리가 적지다”고 말했다.

광양읍 덕례리 일원 3만2162㎡ 부지에 160억원을 들여 설립될 운전면허시험장은 오는 2015년 준공 예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삶은 소중한입니다” 곡성군은 2013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지난 9일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곡성군 제공>

여수~부산 해양관광열차 27일부터 운행

여수와 부산을 오가는 남도 해양관광열차가 오는 27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오늘(11일) 부산·경남권 기자단, 파워블러거, 여행사 등 200여명을 초청해 부산~여수간 시승운행 환영행사를 갖는다.

이들은 종착역인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해 여수공고 관악합주단의 환영 연주와 유류선투어, 오동도 등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14일에는 시승단 200여명이 참가,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부산의 주요관광지를 찾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지역 명품 키우기 지자체 나섰다

보성군 차 전문가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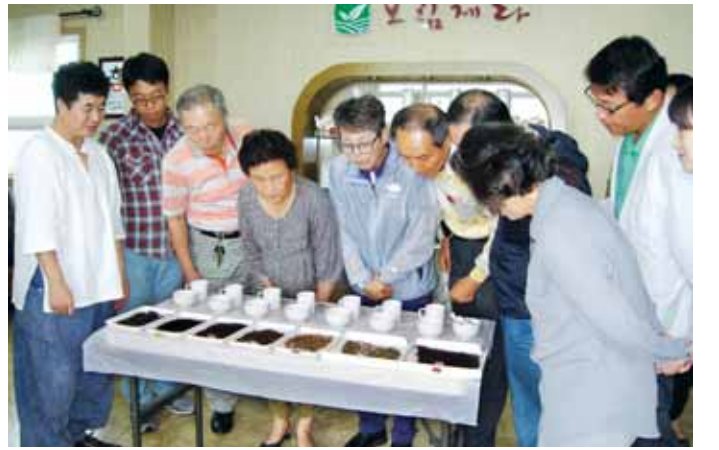
차의 본고장 보성군이 고품질 명차 생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군은 10일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차 가공업체와 차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명차 생산을 위한 차제다기술 및 품질평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녹차연구소 윤창용 박사의 ‘차나무 신종종 육성 및 재배관리’, 최정 박사의 ‘홍차 제조방법과 품질평가’, 한국발효차연구소 박희준 소장의 ‘발효정도에 따른 차다이온 및 실습’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발효차 교육은 차잎의 채취부터 제다기술, 품질평가 전 과정이 실습 위주로 진행돼 교육생들이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계기가 됐다.

교육생 최수(여·32)는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기



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사랑받는 보성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군수품질인증제 시행을 통한 차별화된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아울러 4년 연속 국제유기인증획득 추진 등을 통해 품질 좋은 보성차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zb@

고흥군 시금치 생산 교육

고흥군은 지난 9일 도덕농협에서 농업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조진언 전문지도사를 초청해 비 수확 후 이모작 재배 및 유품농지를 활용한 틈새 소득작목 재배를 위한 고품질 시금치 안정생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시금치 파종 전 종자처리, 작형에 따른 품종 선택, 논 재배 시 수분과다에 의한 생리장해, 토양조건 등 시금치 재배관리와 농약안전사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조진언 전문지도사는 씨뿌림이 두꺼운 시금치를 파종할 경우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 물에 담궈야 하고 특히 이모작 경우 물에 담궈 썩을 틈을 후 파종한 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랑과 배수로를



각각 잡고 깊게 해 비가 왔을 때 물이 정체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틈새소득작목 발굴과 현장중심 기술 지원을 강화해 비전 5000 달성과 자치단체간 농업강소농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고창 청소년 좋겠네

郡, 전주장학숙·청소년문화센터 개관

고창군이 전주와 인근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전주장학숙과 청소년 전용 복합놀이문화시설인 고창청소년문화센터를 잇따라 개관한다.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은 10일 “지난 6일 서울에 이어 전주에도 고창장학숙을 건립하고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수 고창군수, 박래환 군의회의장, 송하진 전주시장, 이명연 전주시의회의장 등과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해 4월부터 후보지 20여 곳을 물색해 고품질, 건물 구조 및 안전성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복대학교와 터미널 인근 금양동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비 42억원이 투입된 전주장학숙은 5층 51실 정원 102명 규모로 건립했고, 각 호실마다 화장실과 샤워기, 냉장고, 침대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다.

입사비도 매달 12만원에 불과해 전주권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8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전용 복합놀이문화시설인 고창청소년문화센터를 고창읍 실내체육관 옆에 500㎡ 면적으로 준공하고, 오는 14일 개관식을 겸한 제2회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지자체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로는 처음으로 펌프, 에어하키, 전자드럼, 풀링 등 12대의 게임기기를 갖춘 후보지 20여 곳을 물색해 고품질, 건물 구조 및 안전성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복대학교와 터미널 인근 금양동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비 42억원이 투입된 전주장학숙은 5층 51실 정원 102명 규모로 건립했고, 각 호실마다 화장실과 샤워기, 냉장고, 침대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일·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9~24세 청소년은 누구나 1000원의 입장료로 모든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전북

순창군 집고쳐주기 사업 내달 종료

순창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올 초 11개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받아 210가구를 선정, 6억2000만원을 들여 지난 4월 공사에 착수했다.

군은 이들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서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누수지붕, 벽체, 천정, 보일러수리, 화장실 보수

공사를 비롯한 창호,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실시했다.

또 추석 명절 귀향 가족들과 편안한 환경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시급한 187가구를 먼저 완료했으며, 나머지 23가구도 올 겨울을 편안하게 지내도록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과면 호치마을 조귀례(여·91) 할머니는 “불편했던 부엌을 고쳐줘 겨울을 버는 고생 안하고 따뜻하게 밥을 해먹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반달곰도 반한 맛 지리산 반달곰 사과외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지난 9일 한 여성농민이 사과를 따고 있다. 지리산반달곰 사과외 남원지역 재배면적은 110ha로, 모양이 좋은 것은 물론 당도가 높고 색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문동신 군산시장 ‘2013 혁신 리더’ 선정

인구 증가·기업 유치·세수 증가 기여

문동신 시장(사진)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난 7년간 시장 전반기에 걸쳐 개혁을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3 혁신 리더’로 선정됐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문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06년 말 26만명이었던 군산시 인구는 2013년 7월 말 현재 27만8615명으로 5년 연속 3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다. 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시세 수입 역시 최근 7년간 712억 원이 증가한 1492억으로 재정 자립기반을 구축했다. 이 같은 성과로 미래경쟁력 2위 도시, 행정투명성 전국 최우수기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3년 연속 우

수상 수상, 제17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 경영지원부분 전국 1위 등에 선정되는 등 주목 받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민선 4기 이후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OCI 등 411개 업체를 유치해 19조2172억원의 투자, 5만5570명의 고용 창출 등을 일궈내는 한편 플라즈마 연구센터 개소, 군산 새만금 산하 융합지구 조성사업 기공식 등 첨단산업도 유치해 왔다.

공교육 강화에도 힘써 205억원의 교육발전기금 조성,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운영, 우수 중학생 인센티브 지원, 지역 명문학교 육성지원, 글로벌



별 체력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화력증진 프로그램을 내놔오며, 군산시 건 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도 최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로운 정책들도 선보였다.

문동신 시장은 “군산을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 가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단신

정읍시, 201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

정읍시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10일 ‘2014년 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은 정읍지역 내에 소재하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곤란한 단체, 공익활동

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는 27일까지 신청 접수수를 받아 먼저 실무 부서의 검토와 2차에 걸친 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지원 단체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애항장려금 지급대상자 20명 선발

남원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서의 청년 기능인력 유출 억제와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3년도 남원시 애항장려금 대상자 20명을 선발한다. 애항장려금은 지난 1995년 ‘남원시 애항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이래 매년 대상자를 선정, 지난해까지 총 170명에게 5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

다. 올해는 조례를 개정해 1인당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남원시 소재 중·고교를 졸업한 만 18세에서 30세인 시민으로, 남원시 소재 고용인력 5인 이상의 공창등록된 중소 제조기업체에 6개월 이상 기능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대상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군산해경, 의무경찰에 해기사면허 취득 교육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복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해기사면허 취득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항해, 기관, 해사영어를 전공한 경찰관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우선 희망자 19명(항해 16명, 기관 3명)에게 면허 취득교육을 해줄 예정이다. 교육은 매주 4시간 선박 항해, 운

용, 법규, 기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군산해경은 소속된 전 의무경찰에게 면허 취득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기사 면허는 1~6급의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및 통신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고창군-원광대 공동협력 협약

고창군은 최근 원광대 분관 대학의 실에서 원광대와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군과 원광대는 농어촌 봉사·의료 활동 추진, 학부 대안 입학관련 정보제공 설명회, 장부지원 교육·연구사업 공동 참여, 양 기관 각종 행사·축제 성공적인 개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 도모, 학술정보 교류,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 등을 상호 지원하게 된다.

군은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고창의 청정환경 환경, 특색 있는 관광지로서 세계문화유산, 고품질 명품 농특산물 홍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